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작가 아나톨 프랑스의 문학창작특징에 대한 분석

오 수 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에서 사상성은 작가의 세계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그 사상성이 좌우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28페이지)

아나톨 프랑스(1844-1924)는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동정한 프랑스의 이름있는 비판적 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이다.

19세기말에 비판적사실주의로부터 창작의 첫걸음을 뗀 그는 적극적인 현실체험과 부단한 창작실천을 통하여 20세기 초엽에는 프로레타리아작가로 성장하였다.

아나톨 프랑스는 1844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말라게역주변에 있는 고서점주인이였다. 어려서부터 책속에 묻혀 살아온 아나톨 프랑스는 고전작품들을 즐겨 읽었으며 앞으로 작가가 될것을 꿈꾸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초기에는 당시 문단을 휩쓸고있던 예술지상주의에 끌려 탐미주의를 고창하는 고답파시 《금빛시초》(1873), 극시 《프린트의 혼례》(1876)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인차 예술지상주의의 반동성을 깨닫고 사실주의에로 방향전환하였다. 당시 신문인 《르 땅》에 실린 그의 논문 《문학과 생활》(1887년-1893년까지의 년대기를 담은 비평)에서는 작가의 정신적변화과정이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논문에서 아나톨 프랑스는 비판적사실주의의 립장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규탄하였다. 그는 주관주의와 신비주의, 절망과 인간증오로 일관된 예술지상주의를 퇴폐주의문학으로 낙인하고 그에 자기의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대치시켰다.

아나톨 프랑스는 국회상원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소설창작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아나톨 프랑스는 창작생활의 전기간 과거에 창조되었지만 반동적인 부르쵸아지들에 의하여 배격당한 우수한 문화적창조물을 고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는 1881~1894년에 민요, 우화를 연구하였을뿐만아니라 문예부흥기의 라블래와 몽페뉴 그리고 계몽기의 여러 활동가들의 작품에 주목을 돌리고 그들로부터 인도주의사상과 인간리성에 대한 믿음의 정신을 섭취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로부터 철학소설의 경험을 물려받았으며 풍자의 수법도 계승하였다.

아나톨 프랑스의 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무엇보다먼저 부패한 자본주의현실을 여러 측면에서 맵싸게 비판하고 그에 아름다운 인류의 미래를 대치시킨것이다.

아나톨 프랑스는 착취와 압박,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를 증오하였으며 사실주의적원칙에 립각하여 당대 현실을 누구보다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그는 창작에서 현실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사회의 면모를 그려보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사회를 일떠세운 로씨야인민들을 격찬하였다.

그는 중세 프랑스봉건사회를 억누르고있던 그리스도교교리의 허황성과 교회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고 프랑스봉건사회와 프랑스부르쵸아사회의 반동적면모를 보여주었으며 19세기말엽 프랑스로동운동에 해를 끼친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날날이 폭로비판하였다.

점차 부르쵸아개량주의적립장에서 벗어난 아나톨 프랑스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투

쟁속에서 부르쥬아인도주의의 제한성을 깨달았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진영으로 접근하였다. 결과 그의 작품들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강하게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장편소설 《빠리에 온 베르쥬레씨》(1901)에서는 자본주의의 부패한 현실에 대치하여 사회주의리상을 제시하면서 사회주의야말로 인류의 이상사회라는것을 암시하고있다. 소설의 총제목은 《현대사》로서 《유보도의 느티나무》, 《버들 마네킨》, 《자색수정의 반지》, 《빠리에 온 베르쥬레씨》의 4부작으로 구성되어있다.

소설은 제국주의의 반동성이 날로 심해지고있던 19세기 말엽의 프랑스현실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프랑스반동지배층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항거정신을 판데로 돌리기 위하여 《드레이류스사건》을 조작하고 반유태인선전감빠니야를 대대적으로 벌린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놈들의 선전에 넘어가 반유태인감빠니야에 가담한다.

주인공 베르쥬레가 살고있는 지방도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도장판인 오름-줄라블린을 우두머리로 하는 이 도시의 공화파, 군국주의파, 귀족파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진보적력량을 탄압하려고 미친듯이 날뛰다.

고대언어학자인 베르쥬레는 정치를 시끄럽게 여기며 멀리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변들을 목격하는 과정에 반동세력의 비렬한 책동의 내막을 파악하게 된다.

소르본종합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빠리에 온 베르쥬레는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린다. 그는 민족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의 더러운 음모를 폭로하고 놈들의 기만선전에 넘어간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과정에 그는 사회주의자인 루빠르(로동자)와 사귀게 된다. 목수인 루빠르는 어느날 베르쥬레의 집에 일하러 왔다가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루빠르는 베르쥬레가 《드레이류스사건》의 진상을 까밝히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데 대하여 기쁘게 여기고있었다. 루빠르는 베르쥬레에게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 가난과 불행이 없고 《주인》과 《로동자》가 따로 없는 사회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부정의의 압박밑에 짓눌리우는 프로레타리아들은 부정의를 쳐부시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베르쥬레는 사회주의만이 진리이고 정의이며 정당하고 선량한 모든것을 낳는 사회라는것을 깨닫게 된다.

작품의 진보성은 프랑스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강하게 폭로비판한데 있다.

작품에서는 권력싸움에 미쳐돌아가던 공화파, 군주파, 귀족파, 교회세력들이 인민들의 투쟁기운을 판데로 돌려보려고 《드레이류스사건》을 조작하고 서로 결탁하여 진보적력량을 탄압하는 내용을 통하여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누르고 기만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폭로하고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을 표현한것도 이 작품의 긍정면의 하나로 된다.

작가는 베르쥬레의 형상을 통하여 착취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새 사회를 지향하는 당시 인민들의 모습을 일정하게 보여주었으며 사회주의만이 인류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미래의 이상사회이라는 사상을 밝혀주었다.

장편소설 《흰돌우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면모를 그려보여준 의의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화체형식으로 되어있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정치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시사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정권력사를 돌이켜본 결과 역대 정권들 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인 정권은 제국주의 정권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은 제국주의는 끊임없는 침략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는 반인민적인 제도이며 특히 미국이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정권이야말로 가장 발전된 정권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인류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잠긴다.

아나톨 프랑스는 사회주의를 인류의 이상으로 찬양함으로써 인민들을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는 작가의 정론, 수필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정론 《독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아나톨 프랑스는 어제는 인민들을 전쟁의 참화 속에 빠뜨린 부르쥔아들이 오늘은 로씨야를 공격하여나섰다고 폭로하면서 사회주의만이 인류의 랑심이고 기아와 빈궁에 빠진 인민들을 구원할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나톨 프랑스의 문학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다음으로 다양한 형상수법과 문체를 탐구리용한것이다.

아나톨 프랑스의 작품에서 착취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날카롭고 힘있는 풍자와 환상은 부패한 사회현상들을 비판하는데서 기본수법으로 되고있으며 가난한 인민들에 대한 동정은 그들을 그러한 처지로 몰아넣은 당대 사회에 대한 강한 풍자와 대치되면서 기지가 넘치는 야유와 해학으로 이루어지고있다.

그는 작품들에서 진지하면서도 해학적인 언어형상의 기교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의 작품들에서 부패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은 힘있고 예리한 문체로 주어지고 인류의 아름다운 이상을 그려보일 때에는 그에 맞게 편안하고 우아한 문체가 활용되고있으며 무권리한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묘사는 유순하고 섬세한 문장표현으로 일관되어있다.

아나톨 프랑스는 단편소설 《크랭끄비유》(1901)에서 풍자의 수법으로 부르쥔아법률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작품에서는 부르쥔아법률제도가 국가안전의 미명하에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위선적이며 반동적인 법률제도라는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은 처음부터 크랭끄비유가 무엇때문에 거리에 수레를 세우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 사정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짜고짜 경찰서로 끌고간 순사 마뜨라와 변호사의 직분을 어기고 법에 무식한 크랭끄비유에게 두서없는 질문을 마구 들이대어 열떠름하게 만들어놓는 변호사 레멜리, 경관과 마찌예박사의 상반되는 진술들을 듣고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연구해볼 대신 무작정 경찰의 편에 서는 재판장 부리슈의 형상을 통하여 밝혀지고있다.

작가는 그들의 형상을 통하여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자본주의법률제도의 부당성을 여지없이 까밝힐수 있었다.

작품에서는 부르쥔아법률제도가 가난한 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반인민적인 법률제도라는 사상을 인민들의 처지를 대변하고있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권리한 주인공 크랭끄비유의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에서 아나톨 프랑스는 하나의 짧은 이야기줄거리를 재치있는 풍자적인 수법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예리한 비판으로 프랑스자본주의현실을 여러 측면에서 비판

하면서 부패화되어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들의 앞날을 절대로 기대할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단편소설 《또마씨》에서 풍자는 은근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랭정한 추리와 판단과 결합되면서 예리성으로 고조되고있다.

장편소설 《뽕긴들의 섬》에서는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예리한 묘사와 밀접히 결합되어 환상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풍자적웃음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작가는 《뽕긴들의 섬》이라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프랑스를 뽕긴국으로 묘사하여 프랑스의 전 역사를 펼쳐보이였다.

작품에서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프랑스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중세이전부터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는가 하는것이 풍자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성 마을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뽕긴들을 인간으로 만들고 뽕긴섬을 돌고래국(영국)해안 가까이로 끌고오는 기괴한 이야기와 성 마을이 수도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뽕긴들에게 세금을 강요하고 세금량을 부자들에게 리롭게 정하며 교회가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풍자한 대표적인 장면들이다.

작품에서는 봉건사회의 형성발전과정도 풍자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여성들의 정조를 마구 유린하고 아이들과 가축들을 잡아먹던 크라켄을 첫 봉건왕으로 형상하고있다. 작가는 봉건왕을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괴물》에 비유하면서 절대권력을 틀어쥐고 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던 봉건왕과 신분적불평등과 노예적굴종만이 지배하던 반인민적인 봉건사회를 《괴물의 시대》라고 야유하고있다.

아나톨 프랑스는 작품의 마지막부분에서 프랑스자본주의의 형성과 악랄한 치부과정, 피비린내나는 권력싸움을 예리하게 풍자하였다.

뽕긴국에서 부르쵸아지들은 치부욕에 미쳐 돈을 긁어내고 명예를 더럽히는 나라의 화근으로 되었으나 반동정부의 비호밑에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치부한다. 부유한 뽕긴들속에서는 미친자,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살아남은 억만장자들은 18살에 번대머리가 되어버린다. 번대머리들은 저들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일떠선 가난한 뽕긴들을 무자비하게 짓누르며 《삐로프사건》과 같은 허위적인 음모들을 조작하여 진보적인 세력을 마구 탄압한다.

《삐로프사건》은 《드레이퓨스사건》에 대한 로골적인 풍자이다. 이것은 8만마리의 말먹이용 건초분실사건이라든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지하게 한 결과 조사문건이 36만 6천kg에 달한다고 풍자한 내용, 감정원 메르밀라드가 삐로프의 집을 수색하고 얻어낸 지출대장과 세탁대장들을 조사한 필적감정결과라고 허위적인 보고를 제출하는데서 잘 보여준다.

이렇듯 묘하게 은닉한 문건철이 사실상 상점건설계획, 현대관화첩들, 학생들의 학습장, 주패 등으로 가득차고 죄를 증명할만 한 자료들은 하나도 없는 빈껍데기라는것이 나중에 밝혀진다.

작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털거하면서 통치배들의 선전에 속아넘어간 프랑스인민들의 애국심은 하늘을 찌를듯 하다고 랭소하였다.

풍자의 심각성과 예리성은 누벨 아틀랑티드(미국)에 대한 묘사에서 더욱 강해지고있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표본이며 선진공업국이라고 떠드는 누벨 아틀랑티드는 시뻘건

불길과 연기로 가득찬 화실과 같은 나라이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종일 뛰어다니고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며 모든 도로는 번잡한 교통으로 하여 소란스럽기 짝이 없고 모든 장소는 고함소리로 하여 아비규환의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누벨 아틀랑티드는 몇만t의 상품을 더 팔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야만적인 국가이다.

작가는 인디안들의 시체우에 일떠선 미국, 침략과 약탈, 살인과 방화로 기름진 미국의 범죄적력사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미국이야말로 가장 악독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국가 이라고 규탄하였다.

작가의 풍자적필치는 억만장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최고를 이루고있다.

행진국의 억만장자인 싸뮤엘 복스라는자는 부상당한 고용노동자에게 돈을 주기가 싫어서 죽음의 길을 택했고 강철회사 사장 에두아르 마르뻡은 거지차림을 하고 길손들의 혼전까지 앓아내다가 멸시를 받는다. 억만장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유전성정신착란을 일으키곤 한다.

이렇듯 작가는 일생동안 황금의 노예가 되어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수전노로 살다가 어지러운 생을 마치는 프랑스부르조아지들을 날카롭게 풍자비판하였다.

아나톨 프랑스의 문학작품들은 자본주의사회가 황금만능의 사회,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 그 사회에서 빚어지는 사회악과 사회적불행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그 근본원인과 해결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새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리상과 그를 체현한 긍정적주인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아나톨 프랑스의 문학창작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사조에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사조으로 프랑스문학이 발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프랑스문학사에서 당당한 한페이지를 차지하고있다.